

21강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 학습목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책임범위와 교권침해에 대해서 판례의 경향을 통해서 숙지한다.

■ 학습내용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교원의 교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와 주의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 핵심용어(용어사전)

- * 성행 : 성격과 평소의 행실
- * 환경 : 개인적 환경(소질, 유전, 습관, 가정환경, 학력) 및 사회적 환경(경제적 사정)을 포함한다.

■ 사례 :

<사건의 개요>

1시가 설치·운영하는 Y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학급의 청소반장으로서 청소시간에 학교 원형교사 3층에 위치한 2학년 9반 교실의 창문 밖 난간에서 추락하여 경추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형교사 내에 있는 2학년 9반 교실은 부채꼴(에서 중심각 부분을 도려 낸) 모양인데, 부채꼴의 호에 해당하는 교실 뒷 편 벽면 전체에 2개의 기둥을 사이에 끼고 허리 높이 정도부터 미닫이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창문 외곽에 이 사건 난간이 있다. 창문틀로부터 약 20cm 높이에는 위 난간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름 약 2~3cm의 철제 봉이 가로로 둘러져 있고, 가운데에 '위험'이라고 적힌 작은 표지판이 달려 있다.

A가 나간 교실 뒤편 구석 캐비닛 옆의 창문 1쌍 앞에는 철제 봉이 없었다.

이에 A 및 A의 부모는 1시(교육감)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 및 A의 부모의 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담임교사는 청소시간에 유리창 청소를 함에 있어 절대로 난간에 나가지 못하도록 적극적, 직접적으로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결말>

1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속 공무원인 위 학교 교장이나 담임교사의 공무수행상의 과실 및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담임선생님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창문 청소를 지시함에 있어 교실에 임하

여 난간 출입을 직접 금지시키거나 창문을 떼어내어 유리를 닦게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방법으로 A등을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등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자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연령인 점에 비추어,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를 주고 자리를 떠났다 하여 이를 들어 담임선생님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까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담임선생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전문가의 의견>

(1)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된다.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난간에서의 추락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난간출입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방한 마련 등이 보다 적극적,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생활관계에 있는 청소시간에 유리창 청소를 함에 있어 절대로 난간에 나가지 못하도록 적극적, 직접적으로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어야 한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반건물과 달리 학생들 수십명이 밀집하여 생활을 하는 교실은 비록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 있는 고등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한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학생들도 쉽게 그 행동을 모방하여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면에서 특히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시설에 대한 방호조치에 있어서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공의 영조물인 교사 난간을 관리함에 있어 학생들의 출입을 보다 확실히 금지하고 난간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출입이 보다 용이하지 않은 형태와 구조를 갖춘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아래쪽 창문을 고정식으로 만들거나, 난간 바깥부분에 추락방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혹은 기존의 철제봉 안전대나마 보다 관리를 확실히 하여 끊어진 부분, 미설치·손괴된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보수를 하는 등으로 추락사고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3)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자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연령인 점에 비추어,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를 주고 자리를 떠났다 하여 교사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까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 학습>

1. 교원의 주의의무의 범위

가. 주의의무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서 요구되는 의무이다. 교과시간에 많이 일어나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체벌의 경우나 위험요인에 있는 수업시간에 안전교육이나 사전교육을 철저히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에 있어서 교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학생에 대한 체벌문제와 사전 조치 및 주의의무를 소홀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나. 교사의 체벌에 의한 사고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해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예측 가능성에 비추어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교원의 사전·안전교육 소홀에 의한 사고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교사는 사전에 체력검사를 임하는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체력검사의 진행을 맡은 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준비 운동을 시키지 않은 채 오래달리기를 실시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며, 날씨의 영향 때문에 올 수 있는 호흡곤란이나 신체의 이상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라. 교원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 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 자신이 한 순간에 이성을 잃어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행하는 체벌은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상 책임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교사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범위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육시간, 과학실험 시간 등에서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의무와 아울러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교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지게 된다.

2. 교원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가.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여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그 한계가 설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이 달라진다.

나. 정규수업 시작 전에 일어난 사고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정규수업시간에 일어난 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은 책임을 진다.

라.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

(1)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직접,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중

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중학교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휴식 중에 일어난 사고라도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의 밀접불가분의 관계 여부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의 여부가 교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준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마. 특별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

가해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자축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씨름 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그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고 보아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의 기준은 특별활동 중 학생 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그 시간과 사고 당사자가 판결의 기준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은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바. 교원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례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부모 등의 친권자가 가지는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생활관계가 있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라 하여도 사회통념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돌발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교사는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이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일반적·일상적 감독·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서만 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에도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어 사고를 예견하고 교육감독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 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학교안전사고에 나타난 교권침해 분석

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원은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피해자

학생, 학부모가 원만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보상 신청을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서처럼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주의의무와 관련된 교권침해 사례

대부분이 교사의 체벌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로서,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훈육적 체벌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형사 고발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언론에 제보하여 사건을 더욱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교사가 부담한 금액에 비해서 학부모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위축당하고 있다

다. 교원의 주의의무는 체벌 사건 이외에 사고위험의 소지가 있는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교육현장에서도 통상 인정하는 주의의무의 여부로 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고 교육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

라. 교원의 주의의무와 교권과의 관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교권은 축소하게 되며, 교사의 징계권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교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교원의 책임을 너무나 강조하고 학생의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교원의 교육권을 억제하고 축소할 우려가 있다.

마.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와 교권

민법상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친권자인 그 부모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보통 12세, 13세 정도는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나, 대법원판례를 보면 중학교 3학년인 만 14세 8개월의 학생에 대해서도 '부모의 보호·감독의무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 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있다.'라고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교원의 보호·감독의 범위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현실은 교원에게 책임이 지나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교권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바. 보호·감독의무와 관련된 교권침해 사례

교원의 보호·의무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는 학생의 부주의와 학생간 다툼에 의한 사고가 많고, 정규 수업시간보다는 현장학습, 쉬는 시간 등에 일어난 사고가 많다.

학생들 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에게 과도하게 보호·감독의무의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한다면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사. 교원의 보호·감독의무와 교권과의 관계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관계된 상황에서 예측가능성을 인정할 때 책임을 진

다고 할 수 있으나, 위험한 장소에 대한 학생들의 청소 활동,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를 운영해야 하는 점들은 오히려 교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현 학교의 운영 체제에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볼 때 교원의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여 교권을 축소하고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징계책임

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징계책임은 교육공무원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징계사유는 (1) 교육공무원 등의 법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을 들 수 있다.

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원의 징계는 일반적으로 교원과 피해 학부모사이에 합의에 의해 해결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원에 대한 징계가 문제되지 않으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 후에도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들 수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원의 이행 정도에 따라 선택 적용된다.

■ 정리하기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해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예측 가능성에 비추어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 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 자신이 한 순간에 이성을 잃어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행하는 체벌은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상 책임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

할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 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이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일반적·일상적 감독·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서만 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에도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어 사고를 예견하고 교육감독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 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평가하기

문제1.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진다.
- (2)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다.
- (3) 예견가능성은 학교의 장 또는 교사의 연령, 교사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4)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해설 : 정답 (3)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2.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지는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교사는 사전에 체력검사를 임하는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 (3) 체력검사의 진행을 맡은 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준비 운동을 시키지 않은 채 오래달리기를 실시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며, 날씨의 영향 때문에 올 수 있는 호흡곤란이나 신체의 이상도 고려해야 한다.

(4)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제한적으로 미치며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설 : 정답 (4)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문제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직접,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중학교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자축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씨름 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

해설 : 정답 (4)

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자축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씨름 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다.